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 의·식·주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

Living Conditions of the Rural Elderly: Clothing, Nutrition, Hous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주생활학과 교수 윤복자

의생활학과 교수 강혜원

의생활학과 부교수 조길수

식품영양학과 교수 손경희

식품영양학과 부교수곽동경

주생활학과 교수 지순

아동학과 교수 김경희

Research Institute of Home Science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Professor : Bokcha Y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 Hewon Kahng

Associate Professor : Gilsoo Cho

Dept. of Food & Nutrition

Professor : Kyunghye Sohn

Associate Professor : Tongkyung Kwak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Professor : Soon Chi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Professor : Kyunghye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지역개발연구과제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Abstract〉

Living conditions of the rural elderly were assessed in terms of clothing behavior,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housing and environmental condi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eighty individuals over sixty residing in the rural community of Iksan-kun, Chollabukdo. The interview method using questionnaires, direct measurement, and observation was used for this study.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from a previous study of the elderly residing in an urban area.

Clothing behavior showed that the elderly residing in the rural community were more concerned about plain and conservative design of clothes than their urban counterparts. Special protective clothes for cropdusting with agricultural chemicals had not been prepared. The following urgent needs were pointed out: development and supply of agricultural chemical protective clothing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appropriate washing and clothing care methods.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was generally good, but poor eating habits were found more frequently in the rural elderly than among the urban dwellers. Several dietary nutrient intakes were insufficient. Contrasting the urban elderly with the rural group, it was found that the urban group lacked sufficient vitamin A and vitamin C and the urban women had insufficient calorie whereas the rural group was deficient in protein, vitamin A, calorie, and fat.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dietary nutrient intake and health index, food habit points, self recognized health status, meal satisfaction, and economic status. Urgent needs of the development of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were pointed out.

Most of elderly residing in the surveyed rural communities were living alone or with their spouse only, therefore only one room was used among the three or four available rooms. Most of the rural elderly were living either in a traditional Korean house built with differing floor levels or in a modified Korean style house. Minimal modernization had been made for kitchen facilities such as sink and gas range or for heating facilities with the briquette boiler. However, sanitary space such as lavatory and bathroom had not been remodeled. A housing welfare program for rural communities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elderly with their city counterparts revealed that the rural elderly have a more stable psychological status and optimistic attitude than those living in a city. However,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elderly did not have any future plan. Community programs for the elderly including hobbies or leisure activities or education programs to generate clos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청장년층이 도시로 빠져나감으로써 가족분산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전국의 60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3%(1990년)인데 반해 농촌인구 가운

데 노인인구비율은 1980년에 10.5%, 1985년에 13.8%이던 것이 1989년에는 16.9%를 차지해 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촌인구가 1987~1988년 사이에 약 50만명(6.4%)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0세이상의 농촌노인인구는 오히려 약 1만명이 늘어난 점에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1

한편, 전국의 노인단독세대 비율은 도시지역이 16.8%(1985년)이던 것이 15.9%(1988년)로 감소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23.3%(1985년)에서 32.8%(1989년)로 증가하여 60세이상의 농촌노인 3명 중 1명은 자녀와 별거하여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2 따라서 농촌노인인구 및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는 사망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과 젊은층의 이농(離農)으로 가속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노인정책분야에서 농촌가구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층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시급하나 농촌노인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연구는 주로 노인복지문제, 불구노인문제에 대해 진행되어 왔고, 노인의 생활문제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생활·식생활·주생활 및 노인심리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학문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함이 대단히 시급하고도 의의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생활: 노인의복 연구는 다른 연령층보다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노인의 의복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윤복자의 6인(1989)과, 같은 자료를 성별로 분석한 강혜원·이선경(1990)의 노인에 대한 의복연구, 김혜경(1972)의 농촌부녀자의 의생활보고 및 농약방제복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여성은 1971년에 주로 한복을 착용하였으나 활동·관리에 편한 양복을 원했으며, 유행에는 민감하지 않았고 평상복으로 작업에 임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의 양로원과 일반노인, 남녀노인 모두에게 의복은 중요한 측면이었고, 의복착용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깨끗함, 입어서 편안한 것의 순이었다. 노

인이 소유한 의복을 입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행이 지난 것, 다음이 체형변화로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평상복은 여자의 경우 여름에 블라우스, 고무줄밴드 스커트, 겨울에 스웨터와 몸뻬, 고무줄밴드 스커트였고, 남자의 경우 여름에 남방과 양복바지, 겨울에 잠바와 양복바지였다. 의복구입은 67%가 직접 구입하며 구매장소는 시장이 가장 많았고(39%) 의복관리에 신경을 쓰며, 세탁은 비누와 합성세제를 함께 사용했다. 농약방제복에 대하여 쾌적한 농약방제복 개발을 위한 연구들(Branson, et al. 1986, 최정화의 2인 1987)과 농약방제복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농가에서는 오염된 농약방제복의 세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et al. 1988).

식생활: 국내외에서 노년기 영양과 건강상태, 식습관, 영양섭취 실태에 관하여 도시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선희 1977, 김성미 1978, 김혜경 1989, 서정숙 1982, 손숙미 1979, 천종희 1988, 강남이 1986, 조영숙 1986, 고양숙 1981, 정혜경 1982, 임현숙 1985, 신현경 1986, 김혜경 1990, Garry 1982, Kim 1986, Hess 1983).

주생활: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전설부 1974, 전경배 1974, 백영홍 1979, 이경희의 3인 1980, 박병길 1986, 박정훈 1986, 한샘·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87, 연세대 주생활학과·건축공학과 1989,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1990)와 양로원 및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태룡 1978, 손인숙 1979, 금요섭 1983, 박태환 1983, 장영진 1983,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지순·윤복자의 4인 1986, 우미경 1988, 윤복자·지순의 3인 1990)등이 있으며, 윤복자의 6인(1989)은 노인의 의·식·주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한 이상적 모델개발연구에서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노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양로원 주거환경 계획을 제안하였다.

노인심리: 노인기는 노화와 더불어 감각과 인지능력이 쇠퇴되는 시기라고 보고되고 있고(Kosnik et al. 1988, Corso 1971, 1977), 감각과 지각, 인지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신체 및 건강상태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며, 시간전망이 변화되어서 정신생활면에 내성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Lowenthal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0, 1985, 1989). 한국통계연감. 1987~1988년 동안 농촌인구는 7,771,007명(1987년)에서 7,272,470명(1988년)으로 감소하였고 60세이상의 농촌노인인구는 1,219,000명(1987년)에서 1,228,000명(1988년)으로 증가하였다.

*2 최성재(1989). 노인복지정책방향의 재정립—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인구. 정부장관(제2)실. p.12.

Chiribaga 1973, Jarbik 1976). 뿐만 아니라 의존성도 증가하여 노인들은 가족관계에서 감정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Bengtson & Blacks 1973),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자 원한다(Lowenthal & Haven 1968).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서 자신의 가족구성원들을 남보다 가깝고 의미있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윤진 1980, 윤진·조석미 1980).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젊은이들을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며,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비교하거나 농촌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목적: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노인을 위한 합리적인 생활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본연구의 분야별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의생활

1. 농촌노인의 의복에 대한 착용 및 관리실태를 밝힌다.
2. 작업복에 대한 착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한다.
3. 앞으로의 노인의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식생활

1.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건강상태, 식생활의식 및 식습관, 영양소섭취실태를 조사, 비교연구한다.
2.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주생활

1. 농촌노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 및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2. 농촌노인들의 생활에 맞는 공간구성과 시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노인심리

1. 이론적으로 농촌노인들이 가지는 심리적 요인들(인지 및 감각능력, 기억력변화, 대인관계의 특징, 기분상태, 미래계획 및 전망,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의 구조적 특성을 추출해 낸다.
2. 실제적으로 1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수립의 대안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노인을 위한 합리적인 생활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조사, 실측 및 관찰을 통한 현장조사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논농사를 주로 하는 평야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우선 문헌자료*³를 토대로 전국에서 논 경작비율이 가장 높은 도(道)인 전라북도(76.5%)를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지역내의 13개 군중 경지면적이 1위인 김제군은 군의 일부가 김제시로 승격되어 순수농촌으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2위(88%)인 익산군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가구당 경지면적이 중위권(6위 / 13개군)으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당위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군청의 통계담당직원들의 협조로 각 읍·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경지면적, 가구수, 인구수, 60세이상의 노인인구수 등의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익산군내 14개 면지역 중 경지면적과 가구당 경지면적이 6위이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5위(14.8%)로 중위권인 용안면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용안면내 33개 자연부락 중 부락수준*⁴ 부락 소득, 노인인구수를 참고로 하여 중위권에 속하는 송산부락*⁵(송산리)과 상위권에 속하는 신은부락*⁶(난포리)을 선정하였다.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9). 한국통계연감. 36호.

*4 부락수준은 면사무소에 주택개량, 소득 등을 토대로 하여 복지(上), 자영(中), 자립(下)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

*5 송산부락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18위 / 33부락이고 호당평균연소득은 6,275천원으로 11위인 자영(中)부락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4명으로 3위이며, 부락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6 신은부락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9위이고 호당연평균 소득은 6,706천원으로 4위인 복지부락(上)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6명으로 6위이며 부락인구의 17.8%를 차지하고 있음.

1차조사는 1990년 4월 4일에 송산부락(송산리)에서 교수 7인과 연구조교 9인이 부락내 60세이상의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조사는 1990년 8월 28일에 신은부락(난포리)에서 연구조교 10인이 부락내 60세이상의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진행 및 절차

본 연구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1990년 4월과 8월에 1, 2차에 걸쳐 의·식·주생활 및 노인심리분야에서 각기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접조사, 실측 및 관찰을 통한 현장조사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 의생활분야

(1) 조사대상

전라북도 익산군의 2개부락 남녀노인이며 중위권인 송산부락과 상위권인 신은부락에서 남녀 각각 2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농촌노인의 의생활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구조적 면담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도시노인연구(윤복자의 6인 1989)에 기초하여, 의복중요도, 의복착용시 중요한 점, 소유의복종 착용하지 않는 정도 및 이유, 평상복 착용실태, 구매 및 관리, 농사일에 착용하는 옷, 농약살포시 착용복 및 관리방법에 대한 총14문항이었고, 문항형식은 리커트형, 선다형, 예·아니오형 및 자유응답식 등이었다.

2) 식생활분야

(1) 조사대상 및 시기

농촌(전북)거주노인 80명(남38, 여42)과 선행연구(윤복자의 6인 1989)에서의 조사대상인 서울거주노인 56명(남27, 여29)으로 총 13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59~85세였고, 65~74세가 75명(55.2%), 64세이하는 31명(22.7%), 75세이상은 24명(22.1%)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시기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1990년 4~8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도시거주노인의 자료는 선행연구(윤복자의 6인 1989)의 연구시기인 1988년

5~6월에 수집한 것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조사도구는 서정숙(1982), 손숙미(1979), 이기열(1980), 임현숙(1981), 문수재(1982)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 재구성된 설문지로 개인별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 (chi)-test,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주생활분야

(1) 연구내용 및 방법

농촌노인의 주거공간 및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관찰, 실측, 스케치를 하였고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대상 주택을 세부적으로 사진촬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 조사도구의 작성

면접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일반사항과 거실 및 식사공간, 가사작업공간, 생리위생공간, 여가공간 등 각 공간에서 노인이 어떤 행위를 주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 2인과 주생활학 전공자 3인의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문항을 작성하였다. 실측 및 스케치를 통한 조사는 그리드용지, 줄자 등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과거에 조사된 농촌주택도면을 실례로 참고하였다.

(3) 본조사

본조사는 훈련된 면접자에 의해 1990년 4월 4일 송산부락에서 남자노인 19명, 여자노인 22명을 면접 조사를 하였고 주택 3채를 대상으로 실측과 촬영을 병행하였다. 신은부락은 1990년 8월 28일 남자노인 20명, 여자노인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역시 주택 3채를 대상으로 실측조사와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9월 2일에 송산부락을 재답사하였다. 조사자료는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부부가 모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송산부락은 37가구, 신은부락은 30가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은 송산부락은 41명, 신은부락은 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노인심리분야

(1) 조사대상

전라북도 익산군 송산부락(송산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중위권부락노인 40명(남녀 각각 20명씩)과 전라북도 익산군 용안면 신은부락(난포리)에 거주하는 상위권부락노인 40명(남녀 각각 20명씩)이었다.

(2) 조사도구

노인심리 파악을 위한 도구는 구조적 면담법으로서 22개 문항으로 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면담내용은 인구론적 변인, 건강문제, 취미 및 여가, 대인관계, 기분 및 지각상태, 미래계획과 미래전망, 죽음에 대한 태도, 돈과 노동에 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이전 연구(윤복자의 6인 1989)에 기초한 것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

차는 1990년 4월 4일에 본 연구자의 2명의 면담자가 중위권부락노인을 대상으로, 2차는 1990년 8월 28일에 2명의 같은 면담자가 상위권부락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각 노인당 약 20분~30분이었다.

(4) 분석방법

면담내용은 본 연구자와 2명의 면담자가 함께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시켰다. 내용분석에 따른 범주별로 중위권부락노인과 상위권부락노인의 반응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의 성격상, 그리고 조사대상자 수의 제한때문에 엄격한 통계처리는 생략되었다.

Ⅲ. 결과 및 논의

1. 의생활분야

1) 의복의 중요성

의복중요도: <표 1>과 같이 여자 73%(29명), 남자 73%(29명)가 의복을 중요시하여 성차는 없었으나,

<표 1> 의복 중요도 및 의복 착용시 중요시 하는 점의 응답빈도*

여자: n=40, 남자: n=40

| 내용 | | 성별 부락 | 여자 | | | 남자 | | |
|--------------------------------------|---------------|---------------------|----|----|----|----|----|----|
| | | | 송산 | 신은 | 합계 | 송산 | 신은 | 합계 |
| 의 복 중 요 도 | | 아주 중요하다 | 6 | 2 | 8 | 4 | 5 | 9 |
| | | 중요한 편이다 | 7 | 14 | 21 | 7 | 13 | 20 |
| | | 그저 그렇다 | 4 | 3 | 7 | 7 | 2 | 9 |
| | | 별로 중요하지 않은편이다 | 2 | 1 | 3 | 2 | 0 | 2 |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0 | 1 | 0 | 0 | 0 |
| | 합 계 | 20 | 20 | 40 | 20 | 20 | 40 | |
| 의 중 요 착 용 하 는 점 | 외양 및 심리 | 적잖고 수수한 것 | 10 | 12 | 22 | 8 | 8 | 16 |
| | | 깨끗한 것 | 6 | 14 | 20 | 5 | 12 | 17 |
| | | 색상 | 2 | 5 | 7 | 2 | 0 | 2 |
| | | 모양 | 1 | 3 | 4 | 2 | 0 | 2 |
| | 안 락 감 | 가벼운 것 | 3 | 5 | 8 | 2 | 1 | 3 |
| | | 따뜻한 것 | 3 | 3 | 6 | 3 | 1 | 4 |
| | | 입어서 편한것 | 3 | 1 | 4 | 5 | 0 | 5 |
| | | 시원한 것 | 2 | 2 | 4 | 0 | 2 | 2 |
| | | 촉감이 부드럽고 따끔거리지 않는 것 | 2 | 2 | 4 | 2 | 0 | 2 |
| | | 기타 | 1 | 2 | 3 | 4 | 0 | 4 |
| | 합 계 | 33 | 49 | 82 | 33 | 24 | 57 | |

*중요한 측면으로 응답한 빈도수의 합계

지역에 따라 신은부락이 송산부락보다 남녀 모두 의복을 더 중요시하였다.

의복착용시 중요시하는 점 : <표 1>과 같이 의복착용시 중요시하는 점은 여자의 총응답횟수가 더 많았으며, 남녀 모두 깨끗한 것, 점잖고 수수한 것은 같은 정도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은 여자는 색깔·모양, 가벼운 것, 따뜻한 것이며, 남자는 입어서 편한 것, 따뜻한 것이었다.

소유한 의복중 착용하지 않는 정도 및 이유 : 소유의복중 입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다'가 여자 62%, 남자 55%이며, '전혀 없다'가 여자 33%, 남자 28%로서 소유의복을 활용하지 않는 정도는 극히 낮았다. <표 2>는 소유의복중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남자는 입

을 기회가 없어서, 체형에 잘 맞지 않아서가 많았으며, 다음이 유행이 지난 것이었고, 한편 여자는 유행이 지난 것, 너무 낡아서, 색깔·모양이 마음에 안들어서, 몸에 맞지 않아서, 입을 기회가 없어서 등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이유였다. 지역차이는 남자만 신은부락이 송산부락보다 입을 기회가 없다는 이유가 더 많았다.

2) 의복의 구매, 착용 및 관리실태

의복구매 : 자신이 의복구매를 하는 사람은 여자 43%, 남자 37%였으며, 구매장소는 시장이용이 여자 67%, 남자 65%로 가장 많았다.

평상시 착용하는 의복종류 : <표 3>과 같이 여자의 경

<표 2> 소유 의복 중 착용안하는 이유의 응답빈도*

여자: n=40, 남자: n=40

| 이유 | 성별 부락 | 여 자 | | | 남 자 | | |
|------------------|----------|-----|----|----|-----|----|----|
| | | 송산 | 신은 | 합계 | 송산 | 신은 | 합계 |
| 유행이 지난 구식이라서 | | 2 | 5 | 7 | 4 | 1 | 5 |
| 너무 낡아서 | | 2 | 4 | 6 | 1 | 1 | 2 |
| 색깔, 모양이 마음에 안들어서 | | 2 | 3 | 5 | 1 | 1 | 2 |
| 잘맞지 않아서(체형이 변해서) | | 2 | 3 | 5 | 5 | 4 | 9 |
| 입을 기회가 없어서 | | 3 | 2 | 5 | 2 | 10 | 12 |
|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 | 3 | 0 | 3 | 0 | 1 | 1 |
| 한복이라서 | | 3 | 0 | 3 | 0 | 0 | 0 |
| 무거운 옷이라서 | | 3 | 0 | 3 | 0 | 0 | 0 |
| 기타 | | 9 | 7 | 16 | 5 | 0 | 5 |
| 합 계 | | 29 | 24 | 53 | 18 | 18 | 36 |

*한개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표 3> 여자 노인의 계절별 평상복의 응답빈도*

n=40

| 계절 | 품목 | 상 의 | | | 하 의 | | | | |
|--------|---------|-----|----|----|-----|----------|----|----|----|
| | | 부락 | 송산 | 신은 | 합계 | 부락 | 송산 | 신은 | 합계 |
| 여 름 | 블라우스 | | 8 | 20 | 28 | 고무줄 낀 치마 | 16 | 19 | 35 |
| | 메리야스 런닝 | | 7 | 3 | 10 | 반 고쟁이 | 4 | 0 | 4 |
| | 한복 지고리 | | 2 | 0 | 2 | 주름치마 | 3 | 1 | 4 |
| | 기타 | | 4 | 1 | 5 | 몸빼 | 2 | 2 | 4 |
| | | | | | | 한복치마 | 1 | 1 | 2 |
| | | | | | | 기타 | 3 | 2 | 5 |
| | 합 계 | | 21 | 24 | 45 | 합 계 | 29 | 25 | 54 |
| 겨 울 | 스웨터 | | 20 | 17 | 37 | 몸빼 | 13 | 10 | 23 |
| | 잠바 / 파카 | | 2 | 5 | 7 | 고무줄 낀 치마 | 5 | 4 | 9 |
| | 한복 | | 1 | 3 | 4 | 누빈치마 | 0 | 2 | 2 |
| | 기타 | | 1 | 2 | 3 | 기타 | 6 | 10 | 16 |
| | 합 계 | | 24 | 27 | 51 | 합 계 | 24 | 26 | 50 |

*한개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우 여름에는 상의로 블라우스 62%, 메리야스 런닝 22%를, 하의로 고무줄밴드 스커트 65%를 착용하였고, 겨울에는 스웨터 73%, 몸뻘 46%, 고무줄밴드 스커트 18%를 착용하였다. 남자의 경우 <표 4>와 같이 여름에는 남방 72%, 양복바지 64%를, 겨울에는 잠바나 파카 72%, 양복바지 63%, 한복바지 24%를 착용하였다. 지역차이로서 여름에 여자는 신은부락의 블라우스 착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송산부락은 블라우스와 메리야스 런닝을 같은 정도로 착용하였다. 남자의 경우 겨울에 송산부락은 한복과 양복바지 착용이 좀 더 많았다.

의복관리: 계절이 바뀔 때 의복은 빨아서 장속에 넣어둔다가 여자 72%, 남자 66%였다. 세탁할 때 여자는 자신이 한다 90%, 남자는 다른 사람이 한다 93%이며, 세탁시의 세제는 비누와 합성세제를 함께 사용한다가 여자 74%, 남자 88%였다.

3) 농사일 및 농약살포시의 의복실태

농사일: 농사를 직접 하는 사람은 여자 65%, 남자 85%였고, 농사일에 착용하는 의복은 <표 5>와 같이 여자는 몸뻘 43%, 남자는 작업복 70%였다.

농약살포: 농약을 뿌릴 때 착용하는 의복은 남녀

<표 4> 남자 노인의 계절별 평상복의 응답빈도*

n=40

| 계절 | 상 의 | | | | 하 의 | | | | | |
|----|---------|----|----|----|-----|-------|----|----|----|----|
| | 품목 | 부락 | 송산 | 신은 | 합계 | 품목 | 부락 | 송산 | 신은 | 합계 |
| 여름 | 남방 | | 14 | 17 | 31 | 양복 바지 | | 15 | 12 | 27 |
| | 런닝 | | 6 | 2 | 8 | 한복 바지 | | 2 | 0 | 2 |
| | 한복 저고리 | | 2 | 0 | 2 | 기타 | | 4 | 9 | 13 |
| | 기타 | | 1 | 1 | 2 | | | | | |
| | 합 계 | | 23 | 20 | 43 | 합 계 | | 21 | 21 | 42 |
| 겨울 | 잠바 / 파카 | | 14 | 16 | 30 | 양복바지 | | 13 | 13 | 26 |
| | 한복 | | 5 | 2 | 7 | 한복바지 | | 8 | 2 | 10 |
| | 기타 | | 3 | 2 | 5 | 기타 | | 0 | 5 | 5 |
| | 합 계 | | 22 | 20 | 42 | 합 계 | | 21 | 20 | 41 |

*한개 이상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음.

<표 5> 농사일을 할때 및 농약 뿌릴때 착용하는 의복의 응답빈도

여자: n=40, 남자: n=40

| | 의복 | 성별 부락 | 여 자 | | | 남 자 | | |
|---------|---------|----------|-----|----|----|-----|----|----|
| | | | 송산 | 신은 | 합계 | 송산 | 신은 | 합계 |
| 농사일 할 때 | 몸뻘 | | 5 | 7 | 12 | 0 | 0 | 0 |
| | 입는옷 그대로 | | 3 | 3 | 6 | 3 | 3 | 6 |
| | 작업복 | | 2 | 3 | 5 | 12 | 11 | 23 |
| | 기타 | | 2 | 3 | 5 | 3 | 1 | 4 |
| | 합 계 | | 12 | 16 | 28 | 18 | 15 | 33 |
| 농약 뿌릴 때 | 우비 | | 5 | 7 | 12 | 4 | 8 | 12 |
| | 평상복(현옷) | | 3 | 5 | 8 | 2 | 1 | 3 |
| | 농약 방제복 | | 2 | 0 | 2 | 6 | 2 | 8 |
| | 모자 | | 8 | 12 | 20 | 6 | 12 | 18 |
| | 마스크 | | 8 | 9 | 17 | 9 | 12 | 21 |
| | 장갑 | | 8 | 8 | 16 | 5 | 7 | 12 |
| | 가글(보안경) | | 1 | 1 | 2 | 0 | 1 | 1 |
| | 기타 | | 4 | 7 | 11 | 5 | 2 | 7 |
| | 합 계 | | 39 | 49 | 88 | 37 | 45 | 82 |

모두 우비를 많이 착용했으며, 다음이 여자는 헌옷, 남자는 농약방제복이었다. 농약살포시 착용한 의복은 모두가 세탁해서 다시 입으며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2. 식생활분야

1) 건강상태

건강지수 점수에 따라 건강상태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2.3%가 양호한 건강상태로 나타났고, 21%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양호군과 보통군에서는 농촌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불량군에서는 도시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보다 불량군에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 조영숙(1986)의 보고에 의하면 건강상태에 대한 호소율은 피로감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유의(p<.01)하게 높았고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호소율이 높은 경향이었다고 한다.

한편 건강을 특별히 돌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건강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는 없었으나 양호군에서는 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표 7〉, 주로 건강을 돌보는 내용은 식사에 주의(33.3%), 간단한 운동(29.5%), 충분한 휴식(20.5%), 정기검진(1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을 돌보는 비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도시거주노인의 건강상태가 농촌보다 대체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2) 식생활 의식구조 및 식습관

식사에 대한 가치관을 거주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도시거주노인의 경우 '영양을 고려한다', '식사의 즐거움, 맛의 충족' 항목에서 농촌거주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농촌거주노인의 경우 '배고픔의 해결', '습관적인 식사'의 항목이 도시거주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Nanove(1971)의 연구에서 저차원의 욕구가 만족하면 영양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의 93.4%가 만족하거나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맛있는 끼니는 점심(40.2%), 저녁(31.5%), 아침(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점수를 분류한 결과(〈표 8〉), 69.8%가 우수양호집단이었고 도시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해 우수양호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5).

3) 영양소 섭취실태

조사대상자들의 1일 1인당 평균영양소섭취량을 한국인 영양권장량(한국인구보건원1989)과 비교하였다. 〈표 9〉에서 도시노인이 단백질(p<.05), 지방, 열량(p<.01)에서 농촌노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상태를 나타내었다.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교했을

〈표 6〉 거주지별 건강지수*점수 분류

빈도(백분율)

| 지역 분류 | 성별 | 도시 노인 | | | 농촌 노인 | | | 합계 |
|-----------|----|-----------|-----------|-----------|-----------|-----------|-----------|------------|
| | | 남 | 여 | 합계 | 남 | 여 | 합계 | |
| 양호(0-5점) | | 13 (48.1) | 9 (31.0) | 22 (39.3) | 21 (55.3) | 16 (38.1) | 37 (46.2) | 59 (42.3) |
| 보통(6-10점) | | 9 (33.3) | 9 (31.0) | 18 (32.1) | 13 (55.3) | 20 (47.6) | 33 (41.3) | 51 (36.7) |
| 불량(11점이상) | | 5 (18.6) | 11 (38.0) | 16 (28.6) | 4 (10.5) | 6 (14.3) | 10 (12.5) | 26 (21.0) |
| 합 계 | | 27(100.0) | 29(100.0) | 56(100.0) | 38(100.0) | 42(100.0) | 80(100.0) | 136(100.0) |

$\chi^2(\text{chi})=5.5 \text{ df}=2 \text{ p}=0.06$

※ 건강지수

임상증세의 유무로서 건강상태를 판정하는 것임. 서정숙(1982) 손경희등(199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문 문항을 수정 재구성하여 사용했음. 노인기에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임상증세들이 없으면 0점, 가끔 있으면 1점, 자주있으면 2점, 항상 있으면 3점으로 각 증세(9가지)가 항상 있으면 총27점이 된다. 이러한 점수 건강상태는 양호함(0~5점), 보통(6~10점) 불량(11점이상)으로 분류하여 건강지수로 했음.

때 도시노인의 경우 Vit. A, Vit. C의 섭취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열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경우 단백질, Vit. A, 열량이 권장량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 섭취율이 매우 저조했다.

강남이(1986), 조명숙(1986), 서정숙(1982), 고양숙(1981)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C는 권장량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비타민 B₁, B₂, 나이아신의 섭취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다른 조사에서는 열량과 단백질만 낮게 나타나고 칼슘, 철분, 비타민A, 비타민B₁, B₂, 나이아신, 비타민C의 섭취량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중산층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Nutrition Review 1983)에서는 열량, 단백질, 철분, 비타민A, 비타민 B₁, B₂, 나이아신, 비타민C 등이 권장량보다 높게 나타났고, 칼슘과 비타민

〈표 7〉 건강에 신경쓰는 여부에 따른 건강 상태 분류

빈도(백분율)

| 분류 | 건강을 특별히 돌보지 않는 노인 | 건강을 특별히 돌보는 노인 |
|-----------|-------------------|----------------|
| 양호(0-5점) | 21 (34.4) | 38 (50.7) |
| 보통(6-10점) | 27 (44.3) | 24 (32.0) |
| 불량(11점이상) | 13 (21.3) | 13 (17.6) |
| 합계 | 61(100.0) | 75(100.0) |

〈표 8〉 거주지역별 식습관점수 분류

빈도(백분율)

| 지역 성별 | 도시 노인 | | | 농촌 노인 | | | 합계 |
|------------|-----------|-----------|-----------|-----------|-----------|-----------|------------|
| | 남 | 여 | 합계 | 남 | 여 | 합계 | |
| 우수(18-24점) | 10 (37.0) | 9 (31.0) | 19 (33.9) | 4 (10.5) | 9 (21.4) | 13 (16.3) | 32 (23.5) |
| 양호(13-17점) | 13 (48.1) | 13 (44.8) | 26 (46.4) | 19 (50.0) | 18 (42.9) | 37 (46.3) | 63 (46.3) |
| 보통(9-12점) | 2 (7.5) | 7 (24.1) | 9 (16.1) | 14 (36.8) | 10 (23.8) | 24 (30.0) | 33 (24.3) |
| 불량(8점이하) | 2 (7.4) | 0 (0.0) | 2 (3.6) | 1 (2.6) | 5 (11.9) | 6 (7.5) | 8 (5.9) |
| 합계 | 27(100.0) | 29(100.0) | 56(100.0) | 38(100.0) | 42(100.0) | 80(100.0) | 136(100.0) |

$\chi^2(\text{chi})=7.8 \text{ P} < .05$

〈표 9〉 각 영양소의 섭취 실태

평균±표준편차

| 영양소 | 지역 성별 | 도시 노인 | | 농촌 노인 | |
|------------|----------|-----------------------|-----------------------|-----------------------|-----------------------|
| | | 남 | 여 | 남 | 여 |
| 단백질(g)* | | 73.6 ± 21.3(104.3) | 60.0 ± 20.3(100.0) | 57.0 ± 16.0(95.0) | 50.8 ± 16.3(84.7) |
| 지방(g)** | | 40.2 ± 16.2 | 35.6 ± 17.4 | 23.7 ± 10.8 | 22.9 ± 11.8 |
| 당질(g) | | 330.3 ± 87.1 | 270.8 ± 70.5 | 295.4 ± 85.5 | 244.9 ± 0.7 |
| Fe(mg) | | 16.7 ± 4.4(167.0) | 14.4 ± 4.8(144.0) | 15.9 ± 3.9(159.0) | 15.0 ± 3.5(150.0) |
| Ca(mg) | | 740.0 ± 179.5(123.3) | 675.9 ± 263.4 (112.7) | 732.9 ± 174.1(122.2) | 709.4 ± 145.4(118.2) |
| Vit A(RE) | | 446.8 ± 124.8(60.0) | 422.9 ± 201.4(56.4) | 506.4 ± 157.3(67.5) | 504.9 ± 112.3(67.3) |
| Vit B(mg) | | 1.2 ± 0.3(120.0) | 1.0 ± 0.3(100.0) | 1.1 ± 0.3(110.0) | 1.0 ± 0.2(100.0) |
| Vit B(mg) | | 1.2 ± 0.3(100.0) | 1.1 ± 0.3(91.7) | 1.2 ± 0.3(100.0) | 1.1 ± 0.2(91.7) |
| Niacin(mg) | | 19.4 ± 4.6(149.2) | 16.1 ± 4.2(123.9) | 18.1 ± 0.49(139.2) | 15.8 ± 0.3(121.5) |
| Vit C(mg) | | 48.6 ± 13.4(88.4) | 46.6 ± 20.2(84.7) | 56.7 ± 19.8(103.1) | 53.6 ± 13.5(97.4) |
| 열량(Kcal)* | | 1978.6 ± 426.3(98.9) | 1644.0 ± 428.6(82.2) | 1623.5 ± 400.5(81.2) | 1389.0 ± 329.9(69.5) |

() % of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 P < .05 ** P < .01

<표 10> 영양소 섭취량과 기타 제요인과의 상호 관계

| | 열량 | 단백질 | 지방 | 당질 | 철 | 칼슘 | Vit A | Vit B | Vit b | Niacin | Vit C |
|--------|---------|---------|---------|---------|---------|---------|---------|---------|---------|---------|---------|
| 연령 | 0.0205 | 0.0764 | 0.1607 | -0.0617 | 0.0235 | 0.0013 | -0.0337 | -0.0969 | 0.0035 | -0.0790 | -0.0341 |
| 흡연량 | 0.1234 | -0.0321 | -0.2188 | 0.2680 | -0.0381 | -0.0965 | -0.1107 | -0.1117 | 0.1283 | 0.1283 | -0.0659 |
| | ** | ** | ** | * | ** | ** | | * | ** | ** | |
| 식습관 점수 | 0.4067 | 0.4753 | 0.5121 | 0.2211 | 0.3681 | 0.2864 | 0.1276 | 0.2325 | 0.2383 | 0.2728 | 0.1362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 지수 | -0.3014 | -0.2569 | 0.1402 | -0.2938 | -0.3789 | -0.3716 | -0.3357 | -0.3800 | -0.3693 | -0.3413 | -0.3308 |

* P< .01 ** P< .001

D는 낮게 나타났다.

4) 영양소 섭취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들과의 상관성

연령, 흡연량, 건강지수, 식습관점수 등의 변수와 각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Vit A와 C를 제외한 각 영양소 섭취량은 식습관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과 건강지수는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 식습관과 건강이 양호할수록 영양소 섭취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과 연령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식사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환경요인중 자각건강상태, 식사만족도, 경제여건, 음주정도와 영양소섭취와의 관계는 <표 11>과 같다. 자각건강상태, 식사만족도, 경제여건 등은 영양소섭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정도는 신현경(1986), 김혜경(1990)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를 볼 수 없었다.

<표 11>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

평균값

| | 환경 요인들(N) | 열량 (Kcal) | 단백질 (g) | 지방 (g) | 당질 (g) | Fe (mg) | Ca (mg) | Vit A (RE) | Vit B (mg) | Vit B (mg) | Niacin (mg) | Vit C (mg) |
|----------|------------|-----------|---------|--------|--------|---------|---------|------------|------------|------------|-------------|------------|
| 자각 건강 상태 | 아주 건강 (18) | 1950.6 | 66.9 | 31.2 | 350.4 | 16.9 | 763.0 | 496.6 | 1.2 | 1.2 | 20.1 | 56.8 |
| | 양호 (48) | 1690.7 | 63.9 | 33.3 | 283.7 | 17.2 | 791.1 | 535.8 | 1.1 | 1.2 | 17.8 | 58.6 |
| | 나쁜편 (38) | 1593.9 | 57.8 | 28.5 | 276.3 | 14.5 | 678.8 | 440.3 | 1.0 | 1.0 | 16.8 | 46.7 |
| | 아주나쁜편(32) | 1383.9 | 48.8 | 22.8 | 245.6 | 13.2 | 617.2 | 418.3 | 0.9 | 1.0 | 15.0 | 4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사 만족도 | 만족 (82) | 1717.0 | 62.7 | 31.1 | 296.3 | 16.3 | 747.1 | 495.0 | 1.1 | 1.2 | 18.1 | 54.8 |
| | 보통 (45) | 1524.5 | 55.4 | 27.5 | 263.6 | 14.4 | 664.3 | 440.8 | 0.8 | 1.1 | 13.2 | 52.2 |
| | 불만족 (7) | 1170.0 | 40.2 | 18.0 | 211.6 | 13.4 | 690.5 | 509.9 | 0.8 | 1.1 | 13.2 | 52.2 |
| | 개선외여지 (2) | 1767.4 | 55.0 | 29.4 | 320.0 | 13.4 | 615.2 | 388.6 | 1.0 | 0.9 | 17.8 | 44.2 |
| | | ** | * | N.S. | ** | * | N.S. | N.S. | ** | N.S. | ** | N.S. |
| 음주량 | 전혀안마심(72) | 1542.4 | 55.1 | 27.3 | 269.1 | 14.8 | 695.4 | 469.4 | 1.0 | 1.1 | 16.4 | 51.4 |
| | 가끔 마심 (24) | 1855.8 | 71.0 | 37.4 | 308.5 | 16.8 | 721.3 | 460.4 | 1.1 | 1.1 | 18.9 | 50.1 |
| | 자주 마심 (40) | 1636.1 | 58.9 | 27.7 | 287.7 | 15.9 | 620.4 | 490.4 | 1.0 | 1.1 | 17.5 | 54.1 |
| | | N.S. | ** | * | N.S. | N.S. | N.S. | N.S. | N.S. | N.S. | ** | N.S. |
| 경제 여건 | 중산층 (68) | 1725.5 | 61.0 | 28.9 | 305.2 | 16.6 | 758.6 | 517.1 | 1.1 | 1.2 | 18.3 | 57.6 |
| | 저소득층 (68) | 1526.3 | 57.1 | 29.5 | 257.8 | 16.4 | 671.1 | 435.6 | 0.9 | 1.0 | 16.0 | 46.3 |
| | | ** | N.S. | N.S. | ** | ** | ** | ** | ** | ** | ** | ** |

* P< .05 ** P< .01 N.S: not significant

3. 주생활분야

1) 조사대상자의 주거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노인들의 일반사항은 <표 12>와 같다. 송산부락은 66~70세가 39%인 16명, 신은부락은 60~65세가 45.0%인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업으로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같이 짓는 가구가 두마을 모두 16가구(43.2%), 15가구(50.0%)로 가장 많았다. 노인들 자신이 느끼는 가정형편을 묻는 문항도 역시 두부락 모두 '중'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18명(43.9%), 26명(65.0%)으로서 높게 나타났고, 한달 용돈은 1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송산부락의 경우 14명(34.1%), 신은부락의 경우 20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다. 현재의 동거가족으로는 노인부부만 살고 있다는 응답이 두부락 모두 13가구(35.2%), 16가구(53.3%)로 가장 많았다.

(2) 주거실태

노인들의 주거실태는 <표 13>과 같다. 주택유형은 송산부락, 신은부락 모두 한옥의 비율이 높았고(67.7%, 66.7%), 주택내 방수는 3개가 가장 많았으나(48.7%, 56.7%), 대부분이 방을 1개만 사용하고 있었으며(83.8%, 60.0%), 송산부락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비율(59.5%)이, 신은부락에서는 혼자 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66.7%).

부엌유형의 경우 송산부락, 신은부락이 각각 절충식 비율이 91.9%, 60.0%로 나타났고, 취사연료로는 가스를, 난방연료로는 연탄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 구 분 | 지역 분포 | 송산 부락 | | 신은 부락 | |
|------|------------|-------|-------|-------|-------|
| | | f | % | f | % |
| 연 령 | 60~65세 | 11 | 26.8 | 18 | 45.0 |
| | 66~70세 | 16 | 39.0 | 12 | 30.0 |
| | 71~75세 | 10 | 24.3 | 8 | 26.0 |
| | 76~80세 | 4 | 9.9 | 2 | 5.0 |
| | 합 계 | 41 | 100.0 | 40 | 100.0 |
| 생 업 | 논농사 | 6 | 16.2 | 6 | 20.0 |
| | 밭농사 | 2 | 5.4 | 1 | 3.3 |
| | 논+밭농사 | 16 | 43.2 | 15 | 50.0 |
| | 논밭농사+겸업 | 3 | 8.1 | | |
| | 기 타 | 10 | 27.1 | 8 | 26.7 |
| 합 계 | 37 | 100.0 | 30 | 100.0 | |
| 가정형편 | 상 | 8 | 19.5 | 1 | 2.5 |
| | 중 | 18 | 43.9 | 26 | 65.0 |
| | 하 | 15 | 36.6 | 13 | 32.5 |
| | 합 계 | 41 | 100.0 | 40 | 100.0 |
| 한달용돈 | 3만원 미만 | 10 | 24.4 | 7 | 17.5 |
| | 3~5만원 미만 | 10 | 24.4 | 4 | 10.0 |
| | 5~10만원 미만 | 7 | 17.1 | 9 | 22.5 |
| | 10만원 이상 | 14 | 34.1 | 20 | 50.0 |
| | 합 계 | 41 | 100.0 | 40 | 100.0 |
| 동거가족 | 배우자사망 1인가구 | 5 | 13.5 | 1 | 3.3 |
| | 노인부부 | 13 | 35.2 | 16 | 53.3 |
| | 노인부부+자녀 | 10 | 27.0 | 5 | 16.7 |
| | 배우자사망+자녀 | 6 | 16.2 | 6 | 20.0 |
| | 기 타 | 3 | 18.1 | 2 | 6.7 |
| | 합 계 | 37 | 100.0 | 30 | 100.0 |

〈표 13〉 조사대상자의 주거실태

| 구 분 | | 지역 분포 | 송산 부락 | | 신은 부락 | |
|------------------|---------|----------|-------|-------|-------|-------|
| | | | f | % | f | % |
| 주택 유형 | 한옥 | | 25 | 67.7 | 20 | 66.7 |
| | 절충식 | | 12 | 32.3 | 7 | 23.3 |
| | 양옥 | | - | - | 3 | 10.0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방수 | 2개 | | 10 | 27.0 | 7 | 23.4 |
| | 3개 | | 18 | 48.7 | 17 | 56.7 |
| | 4개 | | 8 | 21.6 | 4 | 13.3 |
| | 5개 이상 | | 1 | 2.7 | 2 | 6.6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사용하는 방수 | 1개 | | 31 | 83.8 | 18 | 60.0 |
| | 2개 | | 3 | 8.1 | 6 | 20.0 |
| | 3개 | | 3 | 8.1 | 5 | 16.7 |
| | 4개 | | - | - | 1 | 3.3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동거 여부 | 배우자와 함께 | | 22 | 59.5 | 8 | 26.7 |
| | 혼자 | | 11 | 29.7 | 20 | 66.7 |
| | 기타 | | 4 | 10.8 | 2 | 6.6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부 역 유 형 | 재래식 | | 2 | 5.4 | 5 | 16.6 |
| | 절충식 | | 34 | 91.9 | 18 | 60.0 |
| | 입식 | | 1 | 2.7 | 7 | 23.4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취사 연료 | 연탄 | | 2 | 5.4 | 1 | 3.3 |
| | 가스 | | 27 | 73.0 | 28 | 93.4 |
| | 나무 | | 2 | 5.4 | 1 | 3.3 |
| | 기타 | | 6 | 16.2 | - | - |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난방 연료 | 연탄 | | 7 | 18.9 | 4 | 13.3 |
| | 연탄보일러 | | 15 | 40.6 | 13 | 43.3 |
| | 기름보일러 | | - | - | 5 | 16.7 |
| | 나무 | | 4 | 10.8 | 5 | 16.7 |
| | 기타 | | 11 | 29.7 | 3 | 10.0 |
| 합계 | | 37 | 100.0 | 30 | 100.0 | |
| 생리 위생 공간 | 변소 | 재래식 | 34 | 91.9 | 24 | 80.0 |
| | | 화변기 | 2 | 5.4 | 2 | 6.7 |
| | | 양변기 | 1 | 2.7 | 4 | 13.3 |
| | | 합계 | 37 | 100.0 | 30 | 100.0 |
| | 목욕 탕 | 무 | 26 | 70.3 | 15 | 50.0 |
| | | 옥내 | 8 | 21.6 | 10 | 33.3 |
| | | 옥외 | 3 | 8.1 | 5 | 16.7 |
| 합계 | 37 | 100.0 | 30 | 100.0 | | |
| 요강사용 | | 30 | 81.1 | 17 | 56.7 | |

하였다. 생리위생공간에 있어서 변소는 두 부락 모두 재래식이고(91.9%, 80%), 목욕탕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70.3%, 50.0%),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요강을 사용하고 있었다(81.1%, 56.7%).

부락내에서의 마실행위로는 두 부락의 남녀노인 모두 대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남자노인은 장기·화투 등이, 여자노인은 윗놀이, 음식 만들어 먹기 등이 많았다. 송산부락의 경우 남자노인들은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10~15인이 거의 매일 5시간 이상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으며, 신은부락의 남자노인은 15~20인이 거의 매일 모여 5시간 이상 같이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두 마을의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들에 비해 모이는 인원과 보내는 시간이 적게 나타나 5~10인이 모여서 1~2시간 정도 같이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모이는 장소로는 두 부락 모두 남자노인들의 경우 겨울에는 경로당, 여름에는 모정(마을정자)이었으며, 여자노인들은 주로 부락내의 친구집에서 모인다고 응답하였다.

주택내 여가행위로는 두부락의 남녀노인 모두 T.V. 시청, 라디오청취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신문 등의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내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물은데 대해서는 송산부락의 경우 부엌의 입식화가 16사례인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세식변소, 주택의 개축 내지 증축, 그리고 목욕탕의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신은부락의 경우에 부엌의 입식화가 가장 많은 9사례인 39.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의 개축 내지 증축, 기름보일러 설치, 수세식 변소 순으로 나타났다.

2) 사례연구

농촌노인의 주거공간 및 시설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채의 주택을 선정하여 관찰, 실측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일반사항으로 동거가족을 조사한 결과 노인부부끼리 거주하거나 자녀와 동거, 또는 배우자사망가구로 나타났고 논·밭농사를 주로 하였다. 주택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택유형*7은 한옥, 절충식, 양옥으로 부엌유형*8은 절충식과 입식부엌으로 분류되었다. 지붕

은 기와지붕이 주종을 이루고, 구조는 목구조, 적벽돌구조, 시멘트벽돌조로 조사되었다. 개량사항으로는 부엌에서 개수대를 입식화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량의사를 물어본 결과 고치고 싶은 부분은 많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대수명이 길지 않음으로 인해 주택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주거욕구를 조사한 이효재외 2인(1979)의 연구를 보면 노인은 외형적 양식으로는 과거의 관습 및 익숙함과 관련하여 한옥의 형태를, 그리고 내부양식은 재래의 비효율적인 기능에서 탈피한 효율적·기능적 구조에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농촌주택을 도시의 일반주택과 비교해 보면, 특히 부엌, 변소, 욕실공간이 열악한 상태이고, 신체 및 건강상태가 날로 쇠약해지는 노인의 농촌인구 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의 세 공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3) 농촌노인과 도시노인과의 비교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전반적인 주생활특성을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태룡 197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에 따르면 점차로 장남부부와 노인과의 동거비율은 감소하고 노인끼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혀져 도시, 농촌을 불문하고 결국 노인세대를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조성이 하나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노인의 방사용실태를 보면 가족과 함께 쓰는 비율이 40~60%이며(이효재외 2인 1979),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방을 사용할 때 방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윤복자, 지순외 3인)는 것이 밝혀졌

*7 주택유형은 전통적인 목구조의 농촌주택형식을 한옥, 농촌주택형식에서 시멘트블럭조로 변형된 형태를 절충식주택, 붉은 벽돌조로서 도시형주택을 양옥으로 분류하였다.

*8 부엌유형은 주거공간과 동일한 평면위에 입식작업대가 설치된 부엌을 입식, 바닥차가 나며 가스레인지대나 개수대 등 작업대의 일부만 입식인 경우를 절충식으로 분류하였다.

다. 그런데 농촌노인의 경우 자식과의 별거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내 여러개의 방 중에서 1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이 부족하여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도시노인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윤복자·지순의 3인(1990)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노인은 욕실에서 평균 1주일에 1~2회 목욕한다는 응답이 84.7%로 나타났고 입욕을 대체로 선호하였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욕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60.2%), 재래식변소의 비율(86.0%)이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병길 1986,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0).

여가공간에 있어서는 농촌노인의 경우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남자노인은 부락내 경로당에, 여자노인은 주로 친구집에 모인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양로원에서도 여가공간인 다용도실을 남자 노인들만이 전용하고 있어서 여자노인들이 다용도실에서 성별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행위로는 도시노인, 농촌노인 모두 대화, T.V. 시청, 독서, 휴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윤복자, 지순의 3인 1990).

4. 노인심리분야

1) 건강문제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위권부락 노인집단⁹이 중위권부락 노인집단¹⁰보다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상위권부락 노인들은 55.0%가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평가한데 비해서, 중위권부락 노인은 35.0%가 좋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또 남자노인들(47.5%)이 여자노인들(33.0%)보다 자신의 건강을 좋다고 평가하였다.

몸이 아플때 돌보아줄 실제적 간병인과 이상적 간병인을 알아 본 결과, 실제적 간병인은 중위권부락이나 상위권부락 노인 모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간병인으로는 “자녀”를 들고 있었다.

⁹ 상위권부락은 면사무소에서 주택개량 소득수준등을 토대로 복지부락(上)으로 평가된 난포리 신은부락.

¹⁰ 중위권부락은 면사무소에서 주택개량 소득수준등을 토대로 자영부락(中)으로 평가된 송산리 송산부락.

여자노인의 경우에 자녀를 실제적, 이상적 간병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적인 간병인으로서 자녀를 꼽는 경향은 양로원노인들의 생각과도 일치되는 경향이다.

2) 취미 및 여가활동

상위권부락노인의 경우에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는 20.0%였는데 비해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는 취미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42.5%였다. 취미로서 상위권부락·중위권부락 모두 “일”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에는 상위권부락(50.0%), 중위권부락(37.5%)노인 모두 친구와 함께 지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일반적 기분상태

농촌노인들의 일상의 정서상태는 일반적으로 “즐거움”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 “즐거움”것이 72.5%,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는 “즐거움”것이 42.5%였으며, 중위권부락 노인의 20.0%는 우울한 기분을 나타냈다.

4) 대인관계

농촌노인의 대인관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구,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상위권부락이나 중위권부락 노인 모두 배우자나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상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70.0%),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는 이웃친구(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보면, 상위권부락(97.5%)이 중위권부락(70.0%)노인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젊은이에 대한 태도 역시 자녀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젊은이에 대해서 상위권부락노인의 67.5%가, 중위권부락 노인은 57.5%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상대로서, 상위권부락노인의 경우에 배우자(62.5%)와 의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자녀(20.0%), 친구(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도 의논상대로서 배우자(35.0%)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25.0%), 친구(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용돈 출처

농촌노인의 용돈 출처는 상위권부락은 자녀로부터가 50.0%, 본인이 45.0%로 나타났으며,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는 용돈의 출처가 자녀인 경우가 65.0%, 본인인 경우가 25.0%로 나타났다.

6) 지각상태

면접당일이 며칠인지, 그리고 기억력정도를 알아본 결과, 상위권·중위권부락 노인 모두 75.0% 이상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미래전망

일반적 미래계획과 미래전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래계획

미래계획 유무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미래계획이 없으며, 상위권부락(70.0%)이 중위권부락(60.0%)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촌노인들의 이러한 결과는 도시노인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현상이다(윤복자의 6인 1989).

(2) 일반적 미래전망

농촌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상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 미래를 낙관적(50.0%), 중립적(37.5%), 비관적(5.0%)으로 보고 있으며, 중위권부락 노인의 경우에는 낙관적(35.0%), 비관적(27.5%), 중립적(10.0%)인 순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이나 양로원의 노인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유의할만한 흥미있는 현상이다.

8) 노동에 대한 태도

노동에 대해서 농촌의 상위권부락노인의 80.0%가, 그리고 중위권부락노인의 62.5%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9)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농촌노인들 역시 도시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로 죽음을 운명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상위권부락노인의 72.5%, 그리고 중위권부락노인의 85.0%가 죽음을 운명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는 도시노인들보다 높은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농촌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도시노인들과 양로원 노인들보다 건강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시사한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나 친구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윤진 1990, 윤진·조석미 1980, 윤복자의 6인 1989, Lowenthal과 Haven 1968)의 결과와 일치되는 현상이다. 몸이 아플때 이상적인 간병인으로 "자녀"를 들고 있는 것 역시 선행연구들(Bengtson·Blacks 1973, 윤복자의 6인 1989)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의할만한 현상이다.

미래계획이 없고, 또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못하는 결과는 노인들의 공통된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동기가 낮은 것(Teahan 1958, Heckhausen 1963)과 정서적 불안정(Shybut 1969)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 어떠한 요인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의생활 분야

1) 의복중요도는 농촌과 도시노인 모두 높이 인식하고 있다.

2) 의복착용시 깨끗한 것과 점잖고 수수한 것은 농촌과 도시노인 모두가 중요시 하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노인은 의복이 점잖고 수수한 것에 대한 중요도가 도시노인보다 높으며, 이는 농촌이 전통을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소유의복중 착용치 않는 이유로 나타난 측면들은 도시와 농촌노인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유행이 지난 것은 도시노인에게서는 착용 안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유였으나, 농촌노인에게서는 중요한 한 측면

에 불과하다.

4) 의복구매에서 농촌노인은 자신이 구매하는 경우는 적으나, 구입장소로는 시장이 현저하게 많았다.

5) 평상시 착용하는 의복종류로는 남녀 모두 도시와 농촌이 유사했다. 이는 1970년초의 한복이 농촌부녀자의 일상복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농촌도 실용성 위주의 의생활로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6) 세제는 도시와 농촌 모두 비누와 합성세제를 함께 사용하며, 의복관리도 잘되고 있다.

7) 농약살포시 방제복을 특별히 갖추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의복을 적당히 활용하며 마스크, 모자, 장갑등을 같이 사용하였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농촌노인은 의복을 중요시 하므로 특히 그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수수하고 점잖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평상복 개발이 요구된다.

2) 쾌적하고 농약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농약방제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저렴하게 농촌에 보급시키고, 또한 착용된 방제복의 적절한 세탁·관리법에 대한 지침을 널리 알리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식생활분야

1) 노인의 건강상태는 조사대상자의 79%가 양호·보통의 경우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대체로 농촌노인의 건강이 도시노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도시거주노인이 농촌거주노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식습관 점수 역시 유의적으로 도시거주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

3) 영양소 섭취실태를 보면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단백질, 지방, 열량등을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며, 두집단 모두 Vit A의 섭취율이 RDA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지수, 식습관 점수, 자각건강상태, 식사만족도, 경제여건등이 영양소 섭취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생활분야

1)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은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비율이 높았고, 3~4개의 방가운데 1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택내 다른 공간은 명절 등의 행사 혹은 수납공간으로만 이용되고 평상시 유지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 농촌노인들은 바닥고저차가 있는 한옥 또는 절충식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엌내에서 개수대나 가스레인지만을 부분적으로 입식화 또는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경제력이 허용하는 최소한도내에서 노동과 관련되고 사용에 불편한 부분을 개조하였다. 그러나 노동보다는 생활에 관련된 공간인 변소, 욕실의 개조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불편함은 대부분 지적하였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농촌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바닥의 고저차를 없애고 유지관리가 쉬우며 동선을 최소화하는 농촌주택이 필요하다.

2) 농촌주택 계획시 본체와 부속사로 분리하고, 본체에는 식사·취사공간, 생리위생공간, 침실공간, 공동공간 등을 가족구성과 용도에 맞게 변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평면을 개발한다.

3) 농촌노인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변소와 욕실 공간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로 상하수도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4) 농촌노인들은 경제력이 넉넉치 못하고 기대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거주 불편함이나 주택의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대책이 요구된다.

4. 노인심리분야

1) 농촌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나 친구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다.

2) 몸이 아플 때 이상적인 간병인으로 자녀를 들고 있다.

3) 농촌노인들은 일반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 하지도 못하고 있다.

4) 농촌노인들은 취미로 일을 하고 나머지 여가시간은 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농촌노인들의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건강하고 안정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녀와 이웃노인들의 보다 조직적인 모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1), 2)의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이를 노인정착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상 네 분야의 제언을 종합하여 다음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생활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비 예산부족으로 네 분야 공통의 통합결과와 노인들의 의·식·주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까지는 진행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남이(1986). 서울시내 거주노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1), 52-65.
- 2) 강혜원, 이선경(1990).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의복연구. 생활과학논집, 4, 5-16.
- 3) 건설부(1974). 농촌표준취락기준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4) 고양숙(1981). 제주지역 고령자 영양실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4), 41-54.
- 5) 금요섭(1983).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6) 김선희(1977) 60세 이후의 노년층의 식습관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0(4), 59-67.
- 7) 김성미(1978). 노인 영양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Ⅰ). 대한가정학회지, 16(2), 41-53.
- 8) 김성미(1978). 노인 영양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Ⅱ). 한국영양학회지, 11(3), 1-7.
- 9) 김혜경(1972). 농촌 부녀자의 의생활 현황. 연세논총, 9, 399-419.
- 10) 김혜경, 윤진숙(1989).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의 영양상태와 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2(3), 175-184.
- 11) 문수재(1982). An ecological study of the health status and dietary habits of korean women in menopause. 박사학위논문,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원.
- 12) 박병길(1986). 농촌주택의 공간이용실태와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13) 박태룡(1978). 재택노인의 생활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 14) 백영흠(1979). 농촌주택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15) 서정숙, 이은화, 모수미(1982).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1(1), 7-14.
- 16) 서혜경(1990). 노년기 여성에 있어서 칼슘섭취량, 에스트로젠 수준 및 활동량이 골격상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17) 손경희, 이민준, 황혜선. 노인의 이상적 식사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생활과학논집, 연세대학교, 4:49, 1990.
- 18) 손숙미, 모수미(1970).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층 노인의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2(4), 1-10.
- 19) 손인숙(1979). 농촌지역 가정의 노인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20) 신현경(1986). 도시 노인의 식생활 기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2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1990). 농촌주택 부영의 실태조사 자료집.
- 22)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건축공학과(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 실태조사 보고서.
- 23) 우미경(1988). 양로원 거주노인의 여가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24) 윤복자의 5인(1989). 노인의 의, 식, 주생활 및

- 심리적 적응을 위한 이상적 모델개발연구 — 양로원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7(4), 1-24.
- 25) 윤복자, 지순외 3인(1990). 양로원 주거환경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4.
- 26) 윤진, 조석미(1980).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 75-85.
- 27) 윤진(1980). 노년기의 성격 및 적응특성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름, 58-74.
- 28) 이경희외 3인(1980). 농촌취락구조의 발전적 모형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 29) 이효재외 2인(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34집.
- 30) 이기열, 이양자, 김숙영, 박계숙(1980). 대학생의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2), 73-80.
- 31) 익산군(1989). 통계연보, 29회.
- 32) 전경배(1974). 한국 농촌주택 및 농촌취락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전라북도(1989). 전북통계연보, 29회.
- 33) 정무장관(제2)실(1989).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 34) 정혜경, 정숙희(1982). 한국의 도시빈곤지역과 농촌의 영양섭취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4), 290-300.
- 35) 조영숙, 임현숙(1986). 일부지역 노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 식습관과 건강상태의 관련성 —. 한국영양학회지, 19(5), 315-322.
- 36) 지순, 윤복자외 4인(1986). 노후생활 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과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4(1).
- 37) 천종희, 신명화(1988).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1), 12-22.
- 38) 최정화외 2인(1987). 농약 방제복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2), 91-100.
- 39)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3). 한국의 시설부양노인 실태조사.
- 40) 한샘, 한국건축문화연구소(1987). 농촌주거환경조사연구 보고서.
- 41) Arelson., M.L., Penfield,M.P.(1983). Food and nutrition related attitudes of elderly person living alone.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15(1).
- 42) Bengton, L.L., & Blacks, K.D.(1973).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tion. In P. Blates & K. W. Schie(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43) Branson, D.H. et al.(1986). Thermal response associated with prototype pesticide protective clothing. Textile Research Journal, 56(1).
- 44) Clinical nutrition(1983). Nutritional status of a healthy-middle class elderly population-. Nutrition Review, 41(5).
- 45) Gerry, P.J., Goodwin, J.S., Hunt, WC, Gibert, B. A.(1982). Nutrition status in a healthy elderly population; Vitamin C. Amerci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36.
- 46) Heckhausen, H.(1963). Hoffnung und furcht in der leistungsmotivation. Meisenheim a. Glam.
- 47) Hess, M.A., et al.(1983). Nutrition miniposters for the urban elderly. Journal of Nurtrition Education, 15.
- 48) Jarvic, L.F.(1976). Aging and depression:some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Gerontology, 31, 324-326.
- 49) Kin, S.K., Caldwell, N.R.(1986). Dietary status of elderly persons living in an urban community during winter and summer seasons. Journal of Nutrition for the Elderly, 5(2).
- 50) Kosnik, W., Wimslow, L., Klive, D., Rasinski, K., & Sekuler, R.(1989). Visual changes in daily life throughout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y Sciences, 44, 23-24.
- 51) Lowenthal, M.F. & haven, C.(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 52) Lowenthal, m.F., & Chriboga, D.(1973). Social stress and adaptation:toward a life-course perspec-

- ive. In C. Eisdorfer & M.M. Lawton(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53) Nelson, C. et al.(1988). farm families' attitude and practices regarding pesticide application and protective clothing: A five-state comparison part 2: Launder data.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 54) Shybut, J.(1969). Time perspective,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 55) Teahan, J.E.(1958). Future time perspective, optimism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